

예나씨와 함께 만나보는

원로문화예술인

3.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화가 조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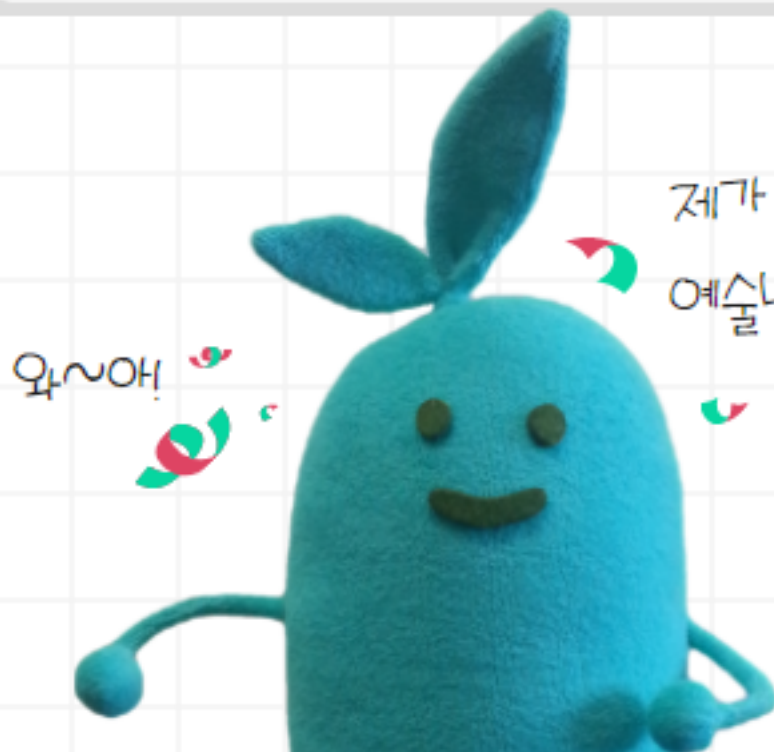


예술나무포럼의 새로운 후원 대상

원로문예인 생애사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씨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예술나무포럼**에서 **우리의 소중한 예술 유산을 보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발간하기로 한 '**원로문예인 전기**'의 주인공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예술나무운동의 마스코트!
예술나무 요정 '예나씨'입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브랜드 예술나무운동**
예술도 나무를 키우듯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술나무 한 그루'를 키움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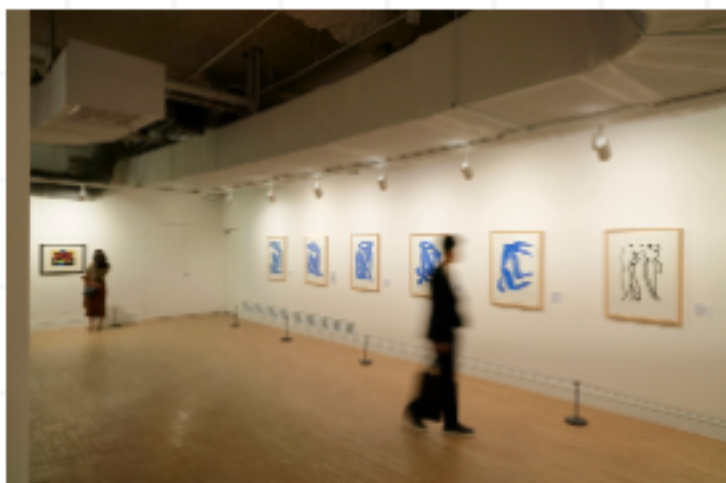
그림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가

전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앙리 마티스' 展
예술생활을 즐기는 저 역시도 흥미롭게 보았던 전시였습니다.

대표작 '이카루스'를 보면 누군가는 자신감과 희망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실감과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화가는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함께 소통하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앙리 마티스' 전시회 포스터 및 대표작 '이카루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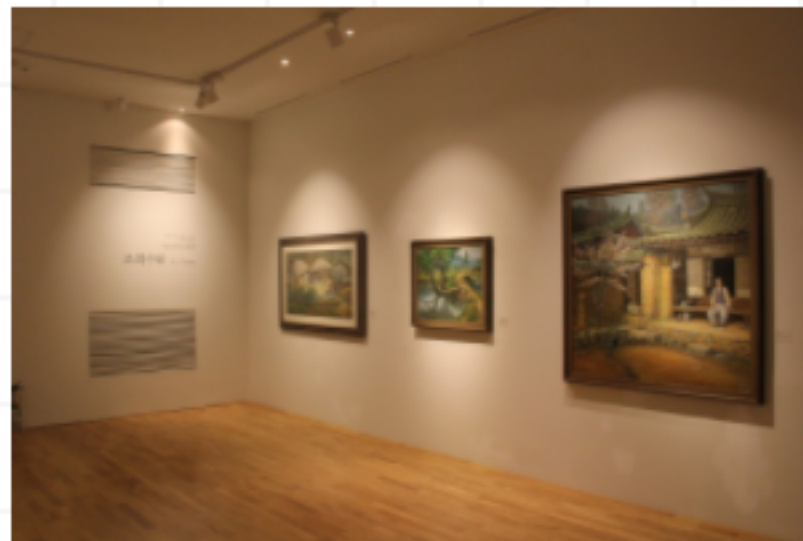
사라진 경주의 옛 모습을 담아내며 경북 미술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조희수 화가

요즘에는 많은 미술관과 상설 전시장 등 화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현장이 다양하지만, 1950년~1970년대에는 특별한 이력이 없는 화가들에게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같은 공모전이 유일한 등용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조희수 화가'는 **경북지역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을 가장 많이 하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 대한민국미술대전 : 1948년에 정부 주관으로 창설하였던 종합미술전람회로 신인 화가들의 작품을 공모를 통해 시상하는 미술대전이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출처: 조희수 선생님)



'조희수 화가' 전시회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

가난한 환경에서도 나뭇가지, 나무판 등 주변에 있는 재료들로 그림을 그렸던

열정적인 화가

'조희수 화가'는 안동에서 태어나 경주에서 자라셨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는 제1회 경주 향토미술제를 통해 지역 화단에 <계림>과 <불상>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셨는데, 특히 <불상>이라는 작품은 재료를 살 수 없던 환경에서도 폐건전지를 분리한 흑연심을 활용하여 2미터 넘게 그렸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출처: 조희수 선생님)



조희수 화가의 작품 <계림>과 <삼존불>

경북 지역의 미술문화 발전을 이끌었던

경북의 유일한 근대미술가

'조희수 화가'는 경주예술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으며, 이후 밀양에서 일하며 대표작인 <밀양 영남로>를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영남루 모습과 함께 남천교, 지금은 사라진 주막집 등이 잘 묘사돼 **회화적·향토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경주예술학교 : 1946년 4월 이의성이 설립한 남한 최초의 미술대학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보다 먼저 개교하였던 예술학교이다.

(출처: 구글이미지-경주신문)



조희수 화가의 작품 <밀양 영남로>

소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따뜻함을 담아냈던

정감있는 사실주의 화가

'조희수 화가'는 현장에 직접 가서 작품을 그리는 방식을 고수하였으며 경주 양동마을에서 3년, 안동 하회마을에서 4년 동안 지내며 그림을 그렸었다고 합니다. '조희수 화가'는 **일상 속 친근한 풍경들을 중심으로** 그렸고, **따스한 시선들을 그림에 담아내어 많은 이들의 정감을 자극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출처: 조희수 선생님)



조희수 화가의 풍경 작품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었던

유공자

'조희수 화가'는 '경상북도미술협회'를 창립하는 데 앞장섰으며 '미술협회월성지부'를 결성하셨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경상북도문화상을, 2003년 경주시문화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조희수 화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화가라는 꿈을 놓지 않으셨고, 경북미술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셨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출처: 조희수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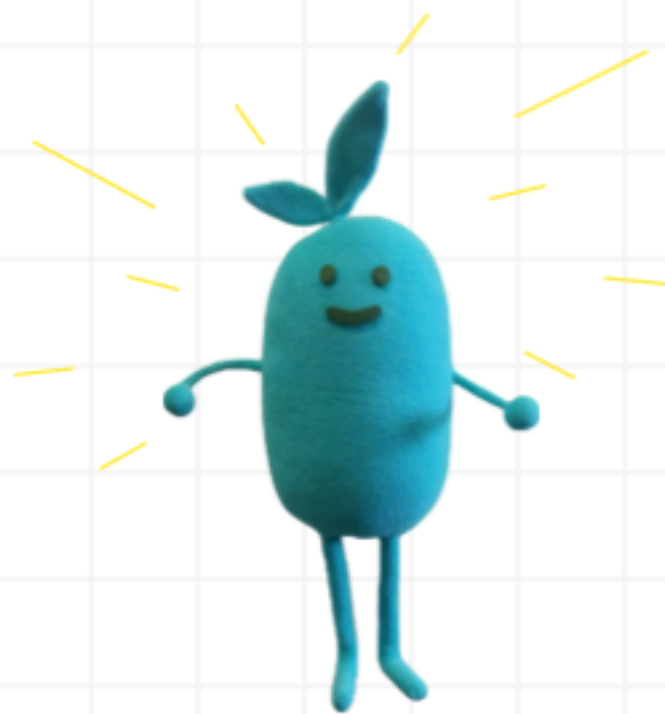


조희수 화가의 풍경 작품

먼 훗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활짝피게 하는

예술나무운동

한평생을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였던 '조희수 화가'의 이야기 잘 만나보셨나요?! 그 시절에만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지금까지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 '조희수 화가'가 하나의 작품으로 남겨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심어주신 **예술나무씨앗이 앞으로는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예술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함께 참여해보시겠어요~?



예술나무운동 참여방법



검색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을 입력



메인화면에서 '후원하기'를 클릭

예술나무운동 ARTISTREE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후원하기

나의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심어주신 **예술나무 한 그루**가
또 하나의 **예술**로 자라납니다!!

ARTISTREE